

연중 제 13 주일

제1독서 : 열왕하 4,8-11, 14-16ㄱ

제2독서 : 로마 6,3-4, 8-11

복 음 : 마태 10, 37-42

숲정이

이 주일의 화답송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강론

신앙의 눈

이수현 신부/ 노송동 성당

열왕기 하권에 의한 1독서, 수넬 마음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지속적인 대접을 했던 한 여인, 그로 인하여 아들을 얻는 은총을 받게되었다는 내용이다.

바로 사도는 로마서에 의한 2독서에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새생명으로 태어날 것이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부모나 처자는 세상적인 욕망과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욕망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받으리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내 제자'란 12사도나 특수한 계층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의미한다.

수넬 여인은 엘리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간직한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 우리는 수넬 여인과 같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2독서의 바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즉,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하신 예수님의 본부대로,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을 위해 사는 길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새생명을 얻는 길이 되리라.

소리

냉수 한 그릇이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미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지내다가 한 번은 참 불쌍하고 안됐다고 느낀 일이 있다.

남에게 해만 끼치고 상처만 주었지 덕을 베풀거나 평화를 나눠주거나 사랑스런 날들을 건네주지 못한 사람들이야 말로 불쌍하고 안됐다는 느낌이 든다.

주님께서는 한 손이 하는 일을 나머지 한 손도 모르게 좋은 일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생각되는 것이 인생이란 좋은 일 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다.

남쪽에서는 비료를 비롯해서 식량도 꾸준히 북쪽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북쪽 지도자는 여전히 그 깊은 뜻과 정성도 몰라보고 못된 짓만 꾸미고 있으니 어둠에 잠긴 생각이란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겠다.

미물인 새들도 먹이를 쥐 버릇하면 먹이주는 이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고 손등에까지 올라앉기도 한다.

힐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베풀 일이다. 돈이 있으며 돈을 자꾸 나눠 베풀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주고,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 지위로 남을 피곤하게 하거나 눈치보게 만들지 말 일이다.

만일 가진 것이 없다면 그 없는 것을 나눠 베풀 일이다. 그 없는 것이란 바로 기도요, 마음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것 가운데 기도보다 더 값진 보물보배가 또 어디 있을까.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다. [정]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에 이어지는 청원은 하느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에 관한 청원이다.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성서 신학으로 되돌아가 구약성서에도 자주 나오며 신약성서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라는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는 단지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다스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느님과 인간에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들을 내포한다. 이 움직임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하강 움직임이다. 하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신성에서 내려오시어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에게 먼저 행동하신다. 여기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곧 정확하게 말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은 양측의 제안을 내포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신다. 바로 여기에서 상승 움직임이 일어난다. 곧 인간은 그들의 속된 세속 차원에서 나와 이제 가능하게 된 상호주의 자세로 감히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제안을 살펴보고, 인간들은 이를 받아들여 “예”라고 말한다. 하강과 상승, 이 두 선의 만남이 새로운 상황을 결정하여,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거의 공생이란 할 긴밀한 나눔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현실을 “나라”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구약성서 안에서 실현된 것으로 적어도 시나이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신약성서에서는 하강선을 따라, 아버지로 계시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

리스도의 부요를 제안하시고, 상승선에서 인간은 더욱 커진 선물인 이 새로운 제안을 살펴보고 신앙의 동의로써 그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정된 새로운 상황이 신약성서의 전형적인 개념인 하느님 나라이다.

우리가 보듯이, 여기에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하나의 발전이다. 그러나 일단 신약성서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더 나은 발전의 추진력을 받는다. 그 “나라”는 모든 실재에, 모든 인간과 만물에 더욱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내포한다. 그 나라에는 또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시고 더욱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 이러한 움직임의 마지막 끝이 종말의 목표가 될 것이다. 바로 사도가 상기시켜 주듯이,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1 고린 15, 28 참조)이 되실 것이다. 이러한 최종 단계에서 나타나는 나라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엄밀히 종말론적 미래에 속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기도문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하고 청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발전의 선택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의 생활에서, 그 구조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풍요로우신 그리스도의 더욱더 큰 현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청원은 하느님과 인간에게 모두 관련되는 것이다. 바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현존의 신적 은총을 통하여 인간과 어우러지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기쁘고 은총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까지 188일 남았습니다.

“잃었던 어린양을 찾았습니다.” (루가 15, 6)

소년원 사목 기금마련 2일호프

일시 : 7월 10일(토)~11일(주일)
 장소 : 코소보 레스트호프(관동로 진전미 꽃집 건너편) ☎ 286-3007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교정 청소년 사목

숭정이 만화 '요십이'와 '만평'의 저자 김병오 선생님께서 그동안 숭정이에 연재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다룬 만화를 모아 단행본을 펴내셨습니다. 26여년간 숭정이를 통하여 시대를 풍자해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자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구입처 - ☎ (0652) 284-1503

(유)1급 쌍용정비공업사
 현대, 기아, 대우, 전자중
 (검사지정업체/견진차량 주야대기)
 (교우 특별우대)
 박 중 철(바오로)
 박 인 자(가브리엘라)
 팔복동 자동차 정비공단 내
 ☎ 212-3800-1/011-681-8823

죽림리조트 유행온천
 당도,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오로)
 국 장 호(요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울젠(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삼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킨 : 160,000원
 · 욕, 맥반석 돌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계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 군산지구 본당소식 ■

나운동 주입신부 463-8787 사 무 실 463-8788 주입신부 박 진 원 463-8789
보좌신부 467-8788 사 무 실 468-8787 보좌신부 김 영 희 468-8788
F A X 467-7700 수 너 원 461-2442 사목회장 김 영 희 461-2442

- 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 실시 ○ 오늘은 사회복지회비 내주는 날입니다. 1. 모임: ① 미사해설자 모임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사목회 상임위원회 - 7월 2일(금) 후 8시 ③ 프란치스코삼회 - 7월 3일(토) 전 10시 ④ 전례위원회 - 7월 1일(목) 후 8시 ⑤ 실로암회 - 7월 1일(목) 후 7시 2. 성체강복 및 조배: 7월 1일(목) 후 9시
- 3. 군산지구 철야기도회: 7월 2일(금) 후 11시, 나운성당
- 4. 군산지구 장애인 협의회: 7월 21일(주일) 후 2시, 나운성당
- 5. 초중고 여름신앙학교 후원 감사: 양상선(제노비오) 5만 본당 수녀원 5만, 박연희(테레사) 5만, 익명 10만, 익명 1만, 익명 5만 * 합계 - 310,000원, 누계 - 2,594,000원
- 6. 주일은 주자 질서 협조: 가능한 한 성당 주자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성당 주변 도로 한쪽으로부터 주차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다음주간 전례: 28일(월)~4일(주일), 11구역 * 구역회장님의 각별한 관심바람 8. 애령회 김사현님: 강길숙(아베스) 20만원
- 지난주 봉헌금: 2,374,440원 □ 교무금: 2,700,000원

대 야 주입신부 451-5417 사 무 실 451-6590 주입신부 김 영 신 451-6590
F A X 451-6590 수 너 원 451-5243 사목회장 김 영 희 451-5243

- 축하 영명: 김바오로 본당신부님 - 29일(화) 축하식 - 오늘 공식미사 후, 외부 순남초청 - 12시 30분, 사제관 본당 신자 - 교육관 * 신부님의 영욕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중고 체육대회에 협조해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모임: ① 울프레야 -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2. 차주 모임: ① 구역장회 ②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③ 청년회
- 3. 산악회 등반: 7월 5일(월), 8시 30분 출발, 지리산 백무동
- 4. 병자 봉성례: 7월 1일(목) - 가정, 2일(금) - 병원
- 5. 성체강복: 7월 1일(목) 미사 후
- 6. 감사 헌금: 정 마태오, 시몬 - 3만, 윤석민 - 1만
- 7. 본당 청소: 신자들의 도움, 인자하신 정녀 Pr.
- 8. 차주 전례: 해설 - 최영남, 독서 - 김철산, 정현숙 봉헌 - 채명희 부부
- 교무금: 1,245,000원

돈울동 주입신부 443-2462 사 무 실 443-2461 주입신부 박 종 탁 443-2462
F A X 443-2463 수 너 원 443-2464 사목회장 박 종 탁 443-2463
유 치 원 443-2465

- 축하 건진, 성령의 특은을 받으신 형제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주간 성서 읽기: 잠언 16~31장
- 교황주일 2차헌금: 오늘 모든미사 중
- 1. 모임: ① 루르드의 성모 Co. - 오늘 11시 30분 ② 청년회 - 오늘 후 8시 ③ 반장모임 - 1일(목) 후 7시 30분
- 2. 성체강복 및 성체거동: 2일(목) 10시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368,510원 □ 교무금: 2,200,000원
- 교무금: 607,000원

소룡동 주입신부 466-3432 사 무 실 466-3433 주입신부 송 호 석 466-3433
F A X 467-9540 수 너 원 463-8930 사목회장 이 귀 성 463-8930

- 오늘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1. 모임: ① 이내회 ② 반석회 ③ 천사회 - 공식미사 후
- 2. 오늘: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주일입니다
- 3. 유아영세: 7월 3일(토) 후 4시, 접수 - 수녀님, 사무실
- 4. 감사: 나운성당에서 어린이 미사책 100권 * 감사합니다
- 5. 은인구함: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가 시작됩니다 * 신앙안에서 성장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접수 - 청소년 분과, 사무실
- 6. 폐지 수습: 많은 협조바랍니다 * 접수 - 환경분과
- 7. 차주: 성전건축 2차헌금 있습니다
- 8. 성전건축: 성모회 100만, 차금성 30만, 윤석민 2만
- 9. 감사 헌금: 김의주 10만, 홍영표 5만
- 10. 차주 안내 및 청소: 바다의 별 Pr.
- 지난주 봉헌금: 517,260원 □ 교무금: 836,000원

팔 마 주입신부 442-1623 사 무 실 446-9197 F A X 442-9194 수 너 원 446-9196 주입신부 오 현 택 사목회장 김 형 배

-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1. 청년회: 공식미사 후
- 2. 상임위원회: 29일(화) 저녁미사 후
- 3. 제대회: 30일(수) 전 11시
- 4. 성체 강복: 7월 1일(목) 저녁미사 중
- 5. 차주 모임: ① 전례자 모임 - 6일(화) ② 반회장 모임 - 7일(수)

오룡동 주입신부 463-7211 사 무 실 463-7212 주입신부 양 제 철 463-7213
수 너 원 463-7213 F A X 463-7212 사목회장 박 한 용 463-7212

- 오늘 교황주일 2차헌금 실시
- 오룡본당의 발전비전과 목표: 가족같은 사랑의 공동체,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동체
- 교육관 신축헌금: 신림과 봉현에 적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성서읽기: 구약성서 491~560쪽(1일에 10쪽) * 성서책 구입 - 본당내 성물의 집에서 판매합니다(신.구약 합본)
- 1. 모임: ① 바다의 별, 평화의 모후 Cu.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가난한 이의 모후 Co. - 오늘 후 2시 ③ 사목회 총회 - 차주 공식미사 후 * 사목회위원장, 구역(반)장, 계단제장 꼭 참석 바랍니다
- 2. 금주는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 3. 예비신자 인도: 일요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8시 * 교리에 많은 인도 바랍니다 4. 레지오에 전신자 가입합니다
- 5. 구역(반) 미사 안내: 7월 1일 - 송풍 1, 2반, 2일 - 우진 1, 2반
- 지난주 봉헌금: 1,211,710원 □ 교무금: 1,907,000원

옥 봉 주입신부 471-4312 사 무 실 471-2004 주입신부 이 동 용 471-2004
F A X 471-2004 수 너 원 471-3003 사목회장 김 성 역 471-3003

- 오늘은 교황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1. 모임: 성가대, 율호회 - 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① 구역장, 요셉회 ② 사목회 - 29일(화) 저녁미사 후
- 3. 감사: 애령 - 김병권(사베리노) 10만, 차량 - 정문규씨 5만
- 4. 병자봉성례: 차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 5. 중,고등부 찬조하신 분: 전가동, 고훈석, 송춘 12구역, 조영순 고선애, 남수라 구역, 박정남, 송혜금, 이영철, 우용목, 김성익 이영순, 이기영, 강기선, 유애자, 조민자, 김숙자, 성모회, 익명 * 감사합니다
- 6. 수고: 성심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7. 구역모임 방문: 7월 1일(목) - 송춘 1, 2구역
- 8. 차주 전례: 해설 - 이우순, 독서 - 장경호, 고봉애 봉헌 - 전가동, 김영애
- 지난주 봉헌금: 665,620원 □ 교무금: 715,000원

월명동 주입신부 443-2583 사 무 실 443-2581 주입신부 전 대 복 443-2581
유 치 원 445-8445 수 너 원 466-2524 사목회장 윤 평 강 443-2581
F A X 443-2581

- 오늘은 교황주일, 교황청으로 보낸 2차헌금이 매 미사 후 있음
-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교육관, 수녀원, 유치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림합니다: 한병선 3백만, 정상남 3백만 익명 2백만, 조월순 1백 5십만, 이병훈 1백만, 변희석 1백만 이송애 1백만, 고영식 1백만, 임미자 1백만, 안길자 1백만 그의 도움주신 분 - 주보녀, 오정환, 최양중, 이종래, 노순안 이태고, 문필래, 최상래 * 감사합니다
- 1. 모임: ① 성심회, 까리따스회, 빈첸시오회 - 교중미사 후 ② 성가대 율호회 - 30일(수) 7시 30분
- 2. 성시간: 7월 1일(목) 저녁미사 후 * 성체강복과 성시간 예절
- 3. 이삭줍기(아기예수 저금통)회원을 위한 미사: 30일(수) 전 10시
- 4. 금주 청소: 사도의 모후 Pr.
- 5. 차주 전례: 해설 - 김길곤, 독서 - 전현배, 송순자 봉헌 - 김여기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073,080원 □ 교무금: 1,495,000원

조촌동 주입신부 451-1402 사 무 실 451-1401 주입신부 양 경 배 451-1401
F A X 451-1401 수 너 원 451-1405

- 우리 본당을 이렇게 만듭시다 ① 신앙을 기쁨으로 삼는 공동체로 ② 신앙을 생활화하는 공동체로
- 오늘: 교황 주일 2차 헌금
- 1. 오늘 모임: 안나회, 모니카회, 마리노회 - 공식미사 후
- 2. 차주 모임: 성체회 - 2일(금) 후 7시 30분
- 3. 윤 수녀님 연수회: 28일(월)~7월 2일(금) 기도바랍니다
- 4. 신부님 영명축일: 7월 11일(주일) "성 베네딕토 아베스 기념일" 영적예물 봉헌 - 7월 4일까지 사무실
- 5. 감사 헌금: 김충열 3만
- 6. 신축헌금 납입: 진우순 50만, 김중학 20만 군산지구 울프레야 11만 3천, 강자서, 김순애, 최종민 10만 신동승 8만, 전인화 5만, 송계진 2만, 익명 2명 12만
- 7. 차주: 하상회, 반석회, 아가페회 -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542,100원 □ 교무금: 1,079,000원

- 6. 오르간 구입 은인을 구합니다: 신협 10만 * 감사합니다
- 7. 중,고생 지구 연합체육대회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회, 성우회, 김형배, 최준식, 노길천, 이용현
- 지난주 봉헌금: 1,123,600원